뉴시티교회 리딩지저스

2026.9.7.-9.12

연대기순 성경 통독 36주 차

새 마음을 주리라

에스겔 20~36장

글 오종향

뉴시티교회

여는 글

사랑하는 뉴시티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통독 중에 한 소식이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말합니다. "성이 함락되었다"(겔 33:21). 삼 년 가까이 예고된 심판이 마침내 사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에스겔서가 방향을 틉니다. 심판의 책이 회복의 책으로 돌아섭니다.

주중에 읽는 열방 심판에는 매번 같은 후렴이 붙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성이 무너진 뒤에야 들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으리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 경첩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눈에

9월 7일 (월) · 내 이름을 위하여

9월 8일 (화) · 눈에 기뻐하는 것을 잃던 날

9월 9일 (수) · 나는 신이라 하는 마음

9월 10일 (목) · 갈대 지팡이를 붙들 때

9월 11일 (금) · 성이 함락되던 날

9월 12일 (토) · 새 마음을 주리라

왼쪽 면에서 말씀을 읽고, 오른쪽 면에 응답을 적으며 한 주를 걸어가십시오.

9월 7일 (월) | 에스겔 20~22장

내 이름을 위하여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되짚으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 땅에서도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거두신 이유가 매번 같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그 이름을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20:9). 21장에서는 칼이 칼집에서 뽑혔고, 22장에서 하나님은 성 무너진 틈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셨습니다(22:30).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우리가 견딘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 운명에 묶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버리시면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스스로 그렇게 묶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대마다 거두신 그 진노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신 것을 하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음이요"(요일 2:12). 오늘 내가 견디는 근거를 그 이름에 두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7일 (월) · 내 이름을 위하여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8일 (화) | 에스겔 23~24장

눈에 기뻐하는 것을 잃던 날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두 자매의 비유로 예루살렘의 배신의 역사가 폭로되었습니다(23장). 포위가 시작된 그 날,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녹처럼 죄가 눌어붙은 가마의 비유가 선포되었습니다(24:6, 13).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며"(24:16). 그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24:18).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아내를 잃고도 곡하지 말라는 명령은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 눈에 기뻐하는 성전이 곧 그렇게 무너진다는, 몸으로 전하는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 날 값을 치른 것은 에스겔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전이 더럽혀지도록 두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거룩한 백성보다 더 소중한 건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눈에 기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롬 8:32). 에스겔이 잃음으로 심판을 전했다면, 하나님은 잃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 조용히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8일 (화) · 눈에 기뻐하는 것을 잃던 날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9일 (수) | 에스겔 25~28장

나는 신이라 하는 마음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심판의 말씀이 유다를 넘어 이웃 나라들로 향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25장), 그리고 바다의 무역으로 부요한 두로(26~28장)입니다. 두로 왕에게 주신 말씀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았다 하도다"(28:2). 지혜와 재물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높아졌고, 하나님은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겠다 하셨습니다(28:6-8).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두로는 신전을 부순 적도, 성도를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두로의 죄는 성공 그 자체가 만든 착각이었습니다. 이 부는 내가 만들었고, 이 자리는 내 지혜로 얻었다. 나는 신이라.

성공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이 문장을, 하나님은 열방 심판의 한가운데 놓으셨습니다. 교만은 종교가 없어도 자라는 우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빌 2:6-7). 신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열방은 심판을 통해서야 여호와를 알게 되지만, 우리는 자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높아지는 대신 그 낮아지신 길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9일 (수) · 나는 신이라 하는 마음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10일 (목) | 에스겔 29~31장

갈대 지팡이를 붙들 때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애굽을 향한 심판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바로는 강 가운데 누운 큰 악어처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말했습니다(29:3).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29:7). 붙들면 부러져 찌르는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31장에서는 하늘까지 자란 백향목 앗수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가 애굽 앞에 거울로 세워졌습니다.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유다가 망한 이유 중 하나는 바벨론이 두려울 때마다 애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군마와 병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기대는 순간 부러지고, 부러지면서 잡은 손을 찢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그것은 무너질 때 나를 함께 다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갈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마 12:20). 세상은 붙들면 나를 찢지만, 그분은 부러진 나를 싸매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기대어 사는지 오늘 정직하게 살피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10일 (목) · 갈대 지팡이를 붙들 때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11일 (금) | 에스겔 32~33장

성이 함락되던 날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바로를 향한 마지막 애가가 불렸고(32장), 에스겔은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33:6-7). 하나님은 심정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33:11).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이르러 말했습니다. "성이 함락되었다"(33:21). 그 저녁에 에스겔의 입이 열렸습니다.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삼 년 가까이 예고된 심판이 마침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밤 선지자의 닫혔던 입이 열리고, 책의 방향이 심판에서 회복으로 돌아섭니다. 가장 어두운 소식이 도착한 자리가 경첩이 됩니다.

함락의 날에도 하나님의 심정은 같습니다. 나는 아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파수꾼을 세우신 것도, 나팔을 불게 하신 것도, 살리시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칼이 오는 것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마침내 향한 곳이 있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슥 13:7). 우리가 베이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기도의 자리, 그 목자 곁에 앉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11일 (금) · 성이 함락되던 날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12일 (토) | 에스겔 34~36장

새 마음을 주리라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양 떼를 잡아먹은 목자들을 심판하신 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34:11).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상한 자를 싸매 주며,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34:16, 23). 짓밟힌 이스라엘 산들에 회복이 약속되었고(36:1-15),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36:26).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회복은 두 걸음으로 옵니다. 먼저 목자가 흩어진 양을 친히 찾아오시고, 그 다음 찾아온 양의 심장을 바꾸십니다. 데려다 놓기만 하면 다시 흩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동사들은 전부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데려오고, 내가 씻기고, 내가 주고, 내가 두고(36:24-27). 씻고 오라 하지 않으시고, 데려다가 씻기십니다. 수술은 환자가 자기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친히 찾아오신 목자가 예수님이고(요 10:11), 새 마음의 약속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으로 이루어집니다(요 3:5). 내일 주일, 나를 찾아오신 목자 앞에 굳은 마음을 내어놓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12일 (토) · 새 마음을 주리라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